

“지방체육 자율성 보장해야”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 의견수렴 없이 ‘권력형 갑질’ 일삼아”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대한체육회에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 관련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권력형 갑질’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안갯속으로 치달고 있다. 관여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다. 이에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놓은

뒤 통보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는 최근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표준안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상 시·도체육회별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방식대로 갈 경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시도 체육회마다 연말 행사 일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선거를 치를 자체 예산도 없고, 선거인단 자격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선거위는 임의단체(시도체육회)에 대해 위탁 운영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선거 과열양상으로 각

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 후에는 체육인들간의 불신과 반목현상이 벌어져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에서는 이번 회장 선거 방식 관련 대한체육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몇 차례 회장 선출 관련 회의를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마치 양측 모두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서는 자율권과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체육이 현실적인 자율, 독립, 자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한체육회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지회에서 회원으로 개선하고 임원 인준권 및 규정 승인권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씨름부,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동메달 획득

호원대학교 씨름부(감독 윤형준)가 제5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해 대학부 개인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호원대 씨름부는 최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장급(80kg이하)에 출전한 이승훈 선수(스포츠경영학과 2학년)는 8강전에서 단국대 이병용 선수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 준결승전에서는 대구대 노재준 선수에게 아쉽게 2대0으로 패하며 3위에 입상했다.



청장급(85kg 이하)에 출전한 정정원(스포츠경영학과 2학년)은 8강전에서 경남대 김태우 선수를 1대0으로 제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해 이체급 최강자 울산대 노범수 선수와 대결에서 아쉽게 2대1로 역전패 하며 3위에 입상했다. 윤형준 감독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 씨름부는 2018년도에 창단했고, 창단 2년 동안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해 대학부 개인전 금 2개, 동 15개를 획득하며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달 도내 체육대회 ‘풍성’

추계전국중고정구연맹전·가족한마당 배드민턴대회 등

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전국대회 등 크고작은 체육대회(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먼저 2019 추계전국중고정구연맹전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창공설운동장 정구장에서 진행된다. 21일에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2019 전국가족한마당 배드민턴대회가 열리고 제3회 회장기 전국카라테선수권대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진안문체체육회관에서 진행된다. 도내대회 또한 익산과 김제, 전주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전북도지사배야구대회가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익산리틀야구장과 고창야구장에서 열린다.

8일에는 김제시민운동장축구장에서 제2회 전북협회장배축구대회가 펼쳐진다. 제11회 전북이순녕회장배태니스대회는 10일 임실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리고 제6회 전북특수공무노동조합인클럽대회와 전북체조경연대회, 전북도지사배킥복싱대회는 28일 각각 익산합라문화센터와 임실군민회관, 전북대에서 진행된다. 전북체육회 최영원 사무처장은 “가을의 첫 달인 9월에도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며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5일, 역대 최대 출전 중고교 정구대회 연다”

전국 중·고등학교 정구 선수들의 최강을 가리는 2019 추계 한국중·고등학교정구 연맹전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순창실내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중·고등학교정구연맹(회장 정금수)이 주최하고 전북도정구협회(회장 신동식)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단 66개팀이 출전해 역대 최대 출전을 기록했다. 경기종목은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각각

단체전과 개인전(단식, 복식)으로 치러지며 대한정구협회 경기규칙을 적용해 진행된다. 특히 고등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시설에서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난해 열린 태권도원 애(愛) 가을 가족캠프.

우리 가족 ‘소원 비둘기’ 날리러

28일 개최 ‘태권도원 애 가을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8일부터 29일까지 ‘태권도원 애 가을 가족캠프’(이하 가족캠프)를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캠프에 4인(3~5인 포함) 기준 15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19일까지 태권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캠프에서는 자녀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기구 트램펄린을 활용한 ‘태권트램펄린’, 전자 겨루기와 가상 겨루기를 체험하는 ‘도전 태권왕’, 온가족이 즐기는 ‘명랑 운동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비둘기 풍선에 가족의 소원을 적어 태

권도원 밤 하늘에 날리는 ‘날아라 소원 비둘기’를 비롯해 인근 사과 농장을 찾아 사과 따기 체험을 하는 등 평소 도심지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도 진행한다. 또한, 가족캠프를 마친 후 태권도원 상설 공연과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전람회 관람 등 태권도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태권도 하GO 보GO’도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한편, 캠프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tl/contents/tkdnovice2_1.do) 또는 전화(063-320-0562, 0569)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태권도시범단

유복합 창작 콘텐츠 부문 1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태권도과는 ‘2019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태권도 레블루션(태권도 유복합 창작 콘텐츠 경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무주군에서 후원했다. 태권레블루션, 태권도 배틀 킥 잇, 킴 오브 더 팀으로 구분해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서 전주비전대학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레블루션(태권도 유복합 창작 콘텐츠 경연) 부문에서 한국무용과 전통 행위예술을 태권무로 표현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난날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2019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태권도 문화 축제로 태권도의 대국민 관심 제고 및 지방화대를 위해 진행됐다. 한편, 전주비전대 태권도 시범단은 다양한 봉사활동 및 공연을 통해 전국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청 태권도팀

실업최강전 대회 성적 ‘우수’

김제시청 태권도팀이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개최된 2019 한 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에 7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전 +46kg급에 출전한 조미희 선수가 또 한번 금메달을 획득하여 지평선의 오장우리 김제시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조미희 선수는 준결승에서 인천동구청의 김은욱 선수를 10:8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수성구청의 김보미 선수와 접전 끝에 20:19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2kg급에 출전해 준결승에 진출한 안해인 선수는 청주시청의 신애리 선수에게 8:6으로 아깝게 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또한 5인조 단체전에서 출전한 김제시청은 예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을 차례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대구수성구청에 아깝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김제=곽도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